

## HEADLINE NEWS

### 버스 정시성 확보 위해 '버스우선' 교통신호시스템 도입 (뉴질랜드: 오클랜드市)

뉴질랜드의 오클랜드(Auckland)市는 교통신호시스템에 「버스우선 신호(Bus-priority Traffic Light)」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버스가 도착예정시각을 넘길 경우, 버스내에 장착된 GPS 시스템이 진입 교차로의 교통신호시스템으로 신호를 보내, 버스 이동 방향에 있는 녹색신호를 최대 10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은 교차로에서 버스가 지체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버스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들도 버스정류장에서 GPS를 통해 다음 버스의 도착예정시각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市는 우선 2002년도 12월까지 24대의 버스와 44곳의 교차로, 50곳의 버스정류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2004년 말까지 市전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 Journal, 2002년 6월호)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동경)

### 도시환경

- ② 환경보전비용 및 효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환경 회계」 도입 (일본: 다마市)
- ③ 「노상흡연 금지지구」 지정 추진 (동경: 치요다區)

### 도시교통

- ④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 (더블린)
- ⑤ '차량의 도심진입' 사전예약제 추진 (영국: 에든버러市)
- ⑥ 모바일폰을 통해 주차요금 징수 (영국: 험블)
- ⑦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내지도 제작 (일본: 고다이러市)

### 사회복지

- ⑧ 市와 축구클럽이 「시민 축구대회」 공동개최 (파리)
- ⑨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개발·시행 (시카고)
- ⑩ 여름방학 기간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 급식 (시카고)

### 행재정

- ⑪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골목길 30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필라델피아)
- ⑫ '현장행정' 위해 「시정서비스 버스」 순회운행 (시카고)
- ⑬ 「바이오시티 구상」을 통해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 육성·지원 (교토)
- ⑭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상담센터 설치 (요코하마)

### ①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 록본기에 거대한 '미래도시'가 곧 탄생될 전망이다. 민간부문으로는 일본 최대의 재개발사업인 「록본기힐즈」는 약 11ha 부지에 사무실, 주택, 호텔, 학교, 방송센터, 미술관, 극장, 정원 등을 포함하는 복합미래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東京을 대표하는 변화가의 하나인 록본기 지구는 주변에 각국 대사관이 위치해 있고, 문화·정보시설이 풍부한 지역이다.

새로운 타운의 거점이 되는 높이 238m의 54층 오피스동의 꼭대기 층에는 미술관이 들어선다. 이곳은 東京의 변화가를 비롯, 도시 전역을 전망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주택은 43층 트윈타워를 포함, 4개 동에 84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고, 새로운 도심주거양식을 갖춘 국제 수준의 고급임대주택을 표방한다. 또한, 타운 전체 건물을 초고층화함으로써 넓은 공지를 확보, 녹지가 풍부한 공원도 조성한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록본기힐즈」는 앞으로 예술·도시계획·패션관련 대학원촌도 유치할 계획이다.

([www.renews.co.kr/news\\_show.asp?category=기타&hosu=156&n\\_seq=3](http://www.renews.co.kr/news_show.asp?category=기타&hosu=156&n_seq=3))

### ② 환경보전비용 및 효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환경 회계」 도입 (일본: 다마市)

일본 다마(多摩)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대(對)시민 홍보를 위해 「환경 회계」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기초 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고 밝혔다. 「환경 회계」란 기업이나 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이에 따른 효과를 금액으로 나타낸 보고서를 지칭한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환경 회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다마市처럼 지자체가 이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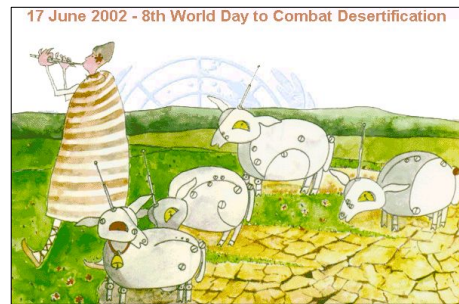
市는 환경부의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쓰레기 처리, 공원녹지 정비·관리 등에 투입된 비용이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가 2000년에 약 46억 8천만엔을 지출하고 135ha의 삼림 벌채 저지, 4280톤의 쓰레기 감량, 자원 회수 2,290톤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2001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2002년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市는 이와 같은 내용을 市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市환경대책과에서도 보고서를 무료로 배부중이다.

(東京新聞, 6. 16)

### 3 「노상흡연 금지지구」 지정 추진 (동경: 치요다區)

일본 東京都 치요다(千代田)구는 일본에서 최초로 區內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노상 흡연을 규제할 방침이다. 치요다區는 이를 위해 최근 노상흡연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치요다區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區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거리 및 도로의 청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區전역을 대상으로 입간판 방치, 광고지 무단부착, 낙서 등을 규제하고, 노상금연지구를 비롯, 환경 미화·정화 추진 모델 지구, 불법주차방지 중점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상금연지구」에서는 흡연 외에도 거리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1차 위반시에는 주의·시정 조치가 주어지고, 이후 부터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區직원 두 사람씩 조를 이뤄 각 지정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한 달에 3번 정도 합동 순찰도 계획하고 있다.



(東京新聞, 6. 1)

### 4 ‘대중교통 우선정책’ 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Dublin)市는 현재 시내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Package 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사업은 15,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없애는 대신, 버스전용차선을 확장하고, 버스공급을 확대하며, 경량전철(DART) 노선을 증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사업이 시행된 후, 오전에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약 8%가 감소하는 등 승용차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市는 30,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없애고, 승용차 이용자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Parking Review, 127호)

### 5 '차량의 도심진입' 사전예약제 추진 (영국: 에든버러市)

영국 에든버러(Edinburgh)市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도심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예약을 하지 않고 도심에 진입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2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0 파운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市는 이 제도의 운용을 위해 차량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 응급서비스 차량, 대중교통수단 및 오토바이는 사전예약 대상차량에서 제외된다. 市는 위반차량에게서 거두어들인 혼잡통행료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www.theherald.co.uk/news/archive/13-6-19102-1-28-27.html](http://www.theherald.co.uk/news/archive/13-6-19102-1-28-27.html))

### 6 모바일폰을 통해 주차요금 징수 (영국: 헐市)

영국 런던 근교의 헐(Hull)市는 모바일폰을 이용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개월에 걸쳐 테스트운전자 200여명이 모바일폰을 이용해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현재 시험중인 요금징수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모바일폰에 음성 인식이 가능케 하는 형태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폰 형태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처리와 동시에 운전자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요금이 청구된다. 市는 현재 주차요금 징수 외에 문자 서비스(Messaging Service)도 테스트중이다.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놓았거나 창문을 열어둔 채 주차한 경우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Parking Review, Issue 127)

### 7]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내지도 제작 (일본: 고다이라市)

일본 고다이라(小平)시 경찰당국은 최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소개한 「히야리하토 맵(Hiyari-Hatto Map)」을 제작했다. 사망사고는 적지만 중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시내 11개 파출소와 주재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위험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과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와 위험한 교차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전체도와 확대도가 있다. 또한, ‘일시 정지를 무시하는 차가 많다’ 혹은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길 전체를 차지한다’ 등과 같이 각 지점의 도로 상황이나 위험시간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사용해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경찰당국은 택시나 버스 기사들로부터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교통사고 위험지점 지도를 계속 제작할 예정이다. 이 지도는 현재 경찰서와 각 파출소, 시청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東京新聞, 6. 14)

### 8] 市와 축구클럽이 「시민 축구대회」 공동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市와 축구클럽 ‘파리 생 제르맹’은 ‘파리, 모두 축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대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선수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축구를 즐기는 16세 이상의 남녀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 한 팀의 엔트리는 12명이고, 실제 경기는 7명이 뛰게 된다. 남성팀, 여성팀 또는 혼성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경기 시간은 15분이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 2차 예선을 거친 후 결승전이 벌어지게 된다. 결승전은 ‘파리 생 제르맹’ 팀의 메인 게임 전에 이 팀의 홈구장에서 열린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INFO10062002.htm](http://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INFO10062002.htm))

### 9]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개발·시행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건설적이고 보람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캠핑, 스포츠, 독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Kidstart」라는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市營 공원과 시카고시립대는 캠핑장과 강의실을 제공하고, 공립도서관은 독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市시민서비스국과 시민단체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市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17,000개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市는 1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공립학교에서 개설하는 여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약 1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준비하는 여름 스포츠캠프와 여름 예술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ci.chi.il.us/Mayor/2002pr.../news\\_press\\_kidstartprogram.htm](http://www.ci.chi.il.us/Mayor/2002pr.../news_press_kidstartprogram.htm))

### 여름방학 기간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 급식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City's Free 2002 Summer Lunch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무료 또는 실비로 학교 급식을 받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동안에도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일에 한해 점심식사와 간식이 공원이나 청소년사업을 실시하는 650여 개의 지역사회기관에서 제공된다. 市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www.ci.chi.il.us/HumanServices/sub/summer\\_lunch\\_program.html](http://www.ci.chi.il.us/HumanServices/sub/summer_lunch_program.html))

###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골목길 30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市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길인 「엘프레즈 골목길(Elfreths Alley)」의 3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市는 그동안 이 골목길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 골목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해왔다. 현재 거리 축제와 함께 옛 가옥 및 정원 탐방 프로그램이 3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골목길을 따라 위치해 있는 33채의 집들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를 이루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의 고풍스런 분위기와 어울리는 소규모 미술관, 커피숍, 레스토랑이 골목길에 들어서 있다. 또한, 골목길의 역사와 거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엘프레즈 골목길 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18세기의 주택 양식과 골목길의 정취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市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 골목길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탐방 예약을 받고 있다.

([www.phila.gov/pdfs/elfreths.pdf](http://www.phila.gov/pdfs/elfreths.pdf))

### ‘현장행정’ 위해 「시정서비스 버스」 순회운영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시민들에게 좀더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서비스(City Services) 버스」를 지역별로 일주일에 3일씩 운영하고 있다. 현재 市의 녹지국, 청소국, 교통국, 도로국, 하수도국, 상수도국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이 버스로 市의 번두리 지역을 돌면서 낙서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등 고치기, 쓰레기 수거함 및 파손된 도로 보수, 무단방치차량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정서비스 버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현장행정’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www.ci.chi.il.us/Mayor/2002press/news\\_press\\_cityservicesbus.htm](http://www.ci.chi.il.us/Mayor/2002press/news_press_cityservicesbus.htm))

### ④ 「바이오시티 구상」을 통해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 육성지원 (교토)

일본 교토市는 바이오테크놀러지(생명공학) 산업의 진흥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교토 바이오시티 구상」을 마련했다. 市는 이 구상에 따라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지원시설을 시내 2곳에 조성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우선, 市는 기업으로부터 임대한 8개 사무실(16~40㎡)을 바이오테크놀러지 관련 중소기업이나 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접 건물에는 교토대 화학연구소의 분실을 설치하고, 입주자를 상대로 기술 상담도 실시한다. 또한,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용 설비를 갖춘 실험실 5곳(44~56㎡)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밖에 市는 산·학·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바이오산업 포럼」을 결성할 계획이다. (mytown.asahi.com/kyoto/news01.asp?kiji=2228)

### ④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상담센터」 설치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주거환경과 경관보호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개발업자와 맨션(아파트) 건설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마을만들기 상담센터」를 2002년 9월 개설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상담창구가 되어온 지구계획 담당과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지역주민이 지구계획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면담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상담을 받으며, 필요시 직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지구계획 결정에 필요한 행정서류서식 등을 조언하게 된다. (日本經濟新聞, 6. 13)